情報의 重要性

정보라는 어휘는 그 유래를 보면 일본의 명치유신시대에 프랑스식 군대제도를 도입하면서 '적정(敵情)을 알린다(報)'는 데에서 생겨난 말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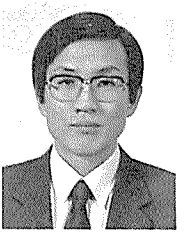
이 정보는 모름지기 일정한 질서와 형식을 갖추고 상품적심리적 가치를 수반하여 의사결정에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

사회가 복잡다각화되고 상품의 선택이 '객관적인 좋고 나쁨보다는 개성적인 좋고 싫음으로' 변모되어 가는 환경속에서 남다른 정보를 입수해 가공한 후 전달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해지고 남과의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모래밭에서 사금을 캐듯 정보를 획득한다'는 말을 어느 책자에서 본 적이 있다. 이는 좋은 정보는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도 되거니와 '金'과 같은 정보가 하찮은 모래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는 말도 된다.

우리는 일상생활중에서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일기예보는 수박장수나 우산장수에게는 더없이 가치가 있고, 교통정보 역시 운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와같이 정보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 가치가 있지만, 필요치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그 속성이기도 하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호박이



徐泰祥
삼성데이타시스템(주) 본부장

넝쿨째 굴러오듯'할 확률은 거의 없다.

평소에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보의 源(Source)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정보의 수집에서 가공전달활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여 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주위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가 경쟁사로 너무 쉽게 유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바로 그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정보의 중요성은 실감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흐름에 대한 목적과 체계의 정립없이 단지 온라인 통신만 구성하면 정보 넷워크가 구축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 같다.